	보도자료	배포일자	11. 02.(월)	매수	2매
		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		
	공공의료본부 지역책임의료팀	실 장	한 은 주	☎	054-530-3042
		담 당	강 희 정		054-530-3023

2026년 경상북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 개최



사진설명: "퇴원 후에도 살던 곳에서 의료·돌봄 이어져야" 경북 7개 책임의료기관, 재택·방문의료 협력 방안 논의

□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하고, 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한 경상북도 7개 책임의료기관이 공동 주관한 「2026년 경상북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」이 지난 10월 29일(목)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개최되었다.

□ 「지역에서 답을 찾다: 통합돌봄 시대, 재택・방문의료 협력체계 구축」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경북권 의료・보건・복지 분야 유관 관계자 등 163명이 참석했다.

□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와 의료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진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. 특히 지자체와 의료기관, 요양・방문간호 기관이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민의 필요에 맞게 연결하고, 이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공동과제를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.

□ 기조강연에서는 홍남수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「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향후 방향」을,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「통합돌봄 시행과 재택・방문의료 정책방향」을 제시했다.

□ 이어서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교수와 구자현 내집에서의원 원장이 농어촌 지역의 재택・방문의료 연계모델과 지역 연계형 재택의료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.

□ 김상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의료자원 확충과 함께 기관 간 연계, 지속적인 환자관리,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 토론에는 예방의학, 재택의료, 지자체 통합돌봄, 방문간호, 건강보험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.

□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참여 확대, 기관 간 정기적인 사례 회의, 지역 내 의료·돌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제시됐다. 참석자들은 의료 접근성과 자원 분포가 다른 지역 여건을 반영해 다양한 재택의료 모델을 마련하고,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했다.

□ 상주적십자병원(김혁수 병원장)은 “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·보건·복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, 퇴원환자와 의료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택·방문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.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,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의료·돌봄 체계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.” 고 밝혔다.